

제주어와 중세 몽골어의 비교 연구*

강 영 봉**

1

제주도는 몽골(蒙古)과 약 100여 년 동안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高麗史』나 『高麗史節要』의 “정언(正言) 벼슬에 있는 현석(玄錫)을 몽골에 파견할 때 (제주의) 성주(星主)를 동행케 했다”는 기사나, “김방경(金方慶)이 기병 800명을 인솔하고 혼도(忻都) 등을 따라 탐라에 들어가 삼별초(三別抄)를 토벌하고, 탐라국초토사(耽羅國招討司)를 설치했다”는 기사는 각각 1266년과 1273년의 일이다. 원종 7년인 1266년이 간접적인 접촉의 시작이라면 원종 14년인 1273년은 직접적인 접촉이 된다. 탐라가 다시 고려에 귀속된 것이 1367년의 일이니, 몽골과의 접촉은 실로 100여년 동안이나 깊은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강영봉, 1996 : 27~28). 간혹 가다 중간에 끊기긴 했지만 이 기간은 사람에게 전주어 말하면 3대에 거친 일이니, 문화 접촉과 그에 따른 문화 이전은 필요 불가결한 일이었다.

언어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하더라도 그렇다. 石宙明(1976 : 90)이 말한 “언어의 공통점”¹⁾이나 金泰能의 “언어와 생활 습속에 그 영향이 또한 컸던 것이니 제주가 특이한 방언과 習俗地로 학계의 관심을 모으게 되는 것도 순수한 탐라 방언과 우리 나라 고어와 遺俗 이외에 특이한 몽고어와 몽고 풍속의 遺痕

* 이 논문은 1998년도 제주대학교 발전 기금 국외 파견 연구 지원 계획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그가 몽고와의 공통점으로 들고 있는 것은 ①帽子·의복·靴에 모피를 사용하는 것 ②牧馬가 성하고 말을 잘 驅使하는 것 ③馬具 ④馬糞을 연료로 사용하는 풍습 ⑤皮帽는 蒙古帽 ⑥田野에 있는 石堆는 몽고의 '오보'와 흡사하다 ⑦牛馬犬의 귀를 절단한다 ⑧濟犬으로 사냥함 ⑨바람으로 選穀하는 법 ⑩搖籃도 蒙古風에 통한다 등을 들고 있다.

이 남아 있는 까닭”(1982 : 38~9)이라는 언급이 아니더라도 언어 접촉이 상당했으리라는 추측은 가능하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연구 결과에 힘입어 濟州語에서 쓰이는 몇 개의 蒙古語 借用語를 찾고자 한다.

2

蒙古語에 대한 관심은 일찍부터 있었다. 『高麗史』를 비롯하여 『龍飛御天歌』의 제50장 注 “…我軍稱阿其拔都아기바를 爭避之…阿其方言小兒之稱也拔都或作拔突蒙古語勇敢無敵之名也.”에 몽골어 ‘바를’이 등장한다. 또 『芝峰類說』에는 “우리 나라 鄉語에 가장 알기 어려운 것은, 임금이 먹는 음식을 ‘水刺(수라)’라 하고 內官을 ‘薛里’라고 하는 말이다. 또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일컬어 ‘進賜’라 하고 종이 주인을 일컬어 ‘上典’이라 하고, 또 종들의 貢을 거두는 자를 ‘達化主’라고 하는 말들이다. 이것은 곧 胡元의 ‘達魯化主’가 잘못 전해진 것이다.=我國鄉語最不可解者謂 御膳曰 水刺謂內官曰 薛里以卑稱尊曰進賜以奴稱主曰上典且奴婢收貢者謂之達化主此則因胡元達魯化赤以訛傳云(『芝峰類說』하, 280면 참조)나 『語言部 方言篇』에 “상고하건대 『格致叢書』에 보면 몽골에서는 ‘腎’을 가리켜 ‘卜兒’라고 한다고 하였다.…=按格致叢書蒙古謂腎曰卜兒…(『芝峰類說』하, 281면 참조)라 하여 몽골어 어휘가 등장한다. 이때 ‘水刺·達化主·卜兒’ 등은 몽골어들이다.

또 李能和(1909)는 『國文研究』에서 “自高麗元宗以後로 蒙元人과 交通이 多함으로 因하여 蒙古語의 勢力이 大하야 金粒이 水銀에 混合함과 如히 蒙古語가 高麗 宮中用語되얏더니라 예컨더 御膳曰 水刺 樂工曰 卒阿治等이라”(1909 : 137) 하여 몽골어로 ‘수라’와 ‘도라치’를 들고 있다. 周時經(1909)도 그의 『國文研究』에서 “高麗時에 元公主가 宮中에서 元語를 用하여 至今 수라, 조라치라 하는 等 語가 其時에 用하던 元語라(1909 : 222)” 하여 李能和에서 제시된 ‘수라’와 ‘조라치’를 몽골어의 예로 들고 있다.

이후 일본인 白鳥庫吉(1929)을 비롯하여 小倉進平(1934)도 몽골어에 대한 언급이 있다. 白鳥庫吉은 『高麗史』에 등장하는 몽골어로, ‘安都赤(aduyči)’에서

'亏丹赤/于達赤(egüdeči)'까지 43개 어휘²⁾를 고찰하고 있다. 한편 小倉進平(1934 : 222~231)은 동물 어휘로 'adǰigmal aktamal kančamal'을 비롯한 18개 어휘, 복식 어휘로 'saŋt'o'를, 인품에 관한 어휘로 'atfi paksu'를 비롯한 7개 어휘, 음식 어휘로 'sura'를 언급하는 등 모두 27개 어휘³⁾를 몽골어로 다루고 있다.

해방 후에는 崔南善과 石宙明의 언급이 있다. 崔南善(1949)에서는 '語文' 항목 중에서 "朝鮮에 있는 外來語의 實際를 範圍 넓게 말씀해주시시오?"의 답의 일부로, 몽골어는 '군(人)·말(馬)·마라기(冠)·더그레(袍子)' 등 4개의 어휘를 들고 있다(삼성문화문고16 『조선상식문답』, 1974 : 232 재인용).

石宙明(1947 : 127~30)은 「외국어에서 유래한 제주도방언」이란 章에서 '몽고어와 관계 있는 것'이란 항에서 구체적인 어휘들을 그 준거로 들고, "前篇에 記載된 語彙 700 餘個 중 몽고어에 관계된 것은 拔記하면 실로 240에 달한다"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나(我)·맨(국수)·박(방구소리)·빙(病)..." 등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어휘도 상당수 들어 있어 재고를 요한다.

본격적인 蒙古語 借用 관계 연구는 李基文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는 5편

2) 그가 제시한 어휘 목록은 다음과 같다.

安都赤-aduɣuči 愛馬-aimaq 阿刺訥忒失里-aratnal 拔都兒-bator/bayatur
 八哈思-baqsoi 波吾赤-bayurči 伯顏帖木兒-bajantemür 八加赤-balagačın
 必闊赤-bičikči 孛兒札-boɣolžar 普塔失里-buda siri 塔刺赤-darači 達魯花
 赤-daruɣači 益智禮善化-ider buha 伊里干-irgen 怯恰口-čerik kün 怯仇
 兒-kekül 怯里馬赤-kelemürči 恟薛旦/怯薛歹-kesikten 姑姑-keke 闐端
 赤-küteči 納麟哈刺-narin 那演-nojan 奧魯-ölči 兀朵-ordo 八思麻朵兒只
 / 迷思監朵兒只/ 八禿麻朵兒只-pasmadorže 合必赤-xabuči 合罕-qan 哈里
 哈赤-xaɣalɣa 火尼赤-xoniči 忽赤/忽只/火里赤-xori 胡刺赤-xulayachi 忽
 林赤-qurimči 時波赤-šibaɣuči 速古赤-šigürči 察刺/察渾-čara 設比兒
 -ceber/ sibir 站赤-žamči 照羅赤-žaroči 只孫-žisun 脫脫禾孫-tokta 禿
 魯花-tülüge 亏丹赤/于達赤-üdeči

3) 그가 제시한 몽골어 목록은 다음과 같다.

동물(18개) - adǰigmal aktamal kančamal karamal karionmal koramal
 koŋgolmal kəxəlmal kubüŋ-axal kurəŋmal or'umal puramal sə
 ramal ʧambulmal ʧəktamal ʧəlʔtamal wəllama kwəkʧin

복식(1개) - saŋt'o

인품(7개) - atfi paksu pa'ʧi suiʧi talxwadɣu ʧoratfi wa'ʧi

음식(1개) - sura

(1964·1966·1978·1985·1985. 이기문(1991)에 재수록)의 논문에서 60여 개 어휘⁴⁾가 몽골어 차용 관계임을 구명하였다. 이 60여 어휘 가운데 濟州島와 관련 있는 어휘는 '가라(물)·가달(석)·간자(물)·고돌개·녹대·부루(물)·사오리·오랑·절다(물)·지달(쓰다)' 등을 들 수 있다.

또 그는 최근(1998:135~144)에는 「국어학의 경계를 넘어」라는 어원을 밝히는 글에서, 3개 어휘 곧 '꼬꼬마(=kükümai*)·가라(거러)치(=qarači)·아랑주(=araki)'를 언급하면서 '아랑주'가 濟州語와 관계 있음을 논하고 있다.

3

차용어 관계 확인 기준은 李基文(1991:244~246)이 제시한 음운론적 기준, 형태론적 기준, 의미론적 기준 그리고 어휘론적 기준에 의한다. 음운론적 기준이란 질서 정연한 음운 대응이 결과라야 한다는 기준이며, 형태론적 기준은 차용어 어느 쪽으로 이루어졌는가를 결정하는 데 기여하는 형태론적 특징을 말한다. 의미론적 기준은 의미의 국한이며, 어휘론적 기준은 그 언어의 어휘 체계에 있어서의 독립성을 말한다. 특히 여기서 적용될 음운 대응은 李基文(1991:136~7)에서 제시된 결과를 따른다.

몽골어	국어
a-----	아
e-----	어 *(으)
o-----	오

4) 그가 구명한 차용어 목록은 다음과 같다.

가달(qaɟagar) 가라(물)(qara morin) 가리운(qalɪrun) 가탈(qatar) 간자(물)(qalɟan morin) 간지개(ganɟuga) 갈지개(qarčɪrai) 고도리(ɣodoli) 고돌개(qudurɣa) 고라(물)(qula morin) 공골(물)(qongɣor morin) 구렁(물)(küreng morin) 꺾진(kögsin) 나친(načɪn) 녹대(noɣto) 다간(darɣan) 더그레(degelei) 도롱태(turimtai) 몬다회(mundaɣa) 바오달(baɣudal) 바를(baatur) 보라(매)(boro) 부루(buɣural) 빛(bičigeči) 사오리(saɣuri) 상가손(sangɣasun) 설아(물)(sirɣa) 송골(šingqor) 슈라(šülen) 아질개(물)(aɟirɣa) 악대(aɣta) 업지운(ebčigün) 오너(오너)(onu) 오랑(olong=olang) 익더귀(itelgü=itelöü) 절다(물)(jeɟerde) 지달(čider) 타락(taraɣ)털릭(terlig) 튀곤(tuɪrun)

제주어와 중세 몽골어의 비교 연구

u-----오>우 *(·)
ü-----우
ö-----워
i-----이

'u'가 '오>우'의 변화는 13세기에서 18세기에 거친 변화로, /우/는 이른바 蒙學三書라 일컬어지는 『蒙語老乞大』·『蒙語類解』·『捷解蒙語』에서 전사된 체계를 말한다. ()의 *표는 간혹 'e'가 /어/ 이외에 /오/로(예 : 더그레←degelei), 'u'가 /오/나 /우/ 이외에 /·/로(예 : 고돌개←qudurʻa, 오너←onu) 나타남을 뜻한다.

이 글에서 인용된 자료집은 몽골 문어는 Lessing(1960), 『元朝秘史』는 Haenisch(1939), 『華夷譯語』는 Lewicki(1949~50), 西部中世蒙古語는 Poppe(1938), 東部中世蒙古語는 『至元譯語』로 Kara(1990), 오르도스 방언은 Mostaert(1941), 칼묵 방언은 Ramstedt(1935)에 따른다. 다만 『元朝秘史』와 『華夷譯語』의 /h/는 자료집 표기대로 쓰지만 /q/를 나타낸다.

4

濟州語 가운데 蒙古語 借用 관계에 있는 몇 어휘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1) 고렴

이 '고렴'은 제주도(1995)에는 중양어 '조문(弔問)에 해당하는 어휘로 설명되어 있다. 玄平孝(1962)에는 '조문하다'의 방언형으로, '조문하다'와 함께 '고렴하다'를 표제어로 올리고 있다. '조문하다'의 '조문'은 한자어로 중양어와 같다. 그러나 '고렴하다'는 '고렴+하다'로 분석 가능하니 '고렴'이 독립형으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石宙明(1947)에서는 '고렴가다=고전가다'를 표제어로 올리고 중양어 '조상(弔喪) 가다'에 해당하는 어휘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朴用厚(1960)에서는 '고렴=고애'라 하고는 중양어로 '조문(弔問)'이라

풀이하고, 동사는 '고렴하다=고견하다=고애하다'라 하여 '조상(弔喪)하다'로 설명하고 있다.

이들에서 문제는 '고렴'이라는 어휘에 있다.

이 '고렴'은 몽골 문어 'qurim'의 차용어다. 이 'qurim'은 'quri-'(모이다. 그 뜻을 좀더 엄밀히 말하며 같은 친척끼리 모이는 것을 말한다) 동사의 어간에 명사화 접미사 {-m}이 연결되어 이루어진 명사다. 『蒙語類解』에 “宴 잔채 ○ 후렴(上 40, 禮度)”라는 구절이 있음에서도 확인되며, 『元朝秘史』를 비롯한 여러 자료집에서도 확인된다. 『五體清文鑑』의 'qurim'(筵, 禮部 筵宴類)도 참고가 된다(만주어). 모음 /i/가 /여/로 변함은 말[馬]의 한 종류인 '설아몰'(sirya)에서 확인된다.

다음 자료의 어휘들은 참고가 될 것이다.

몽골 문어 : qurim(celebration, feast, fete, banquet; wedding; gift)

元朝秘史 : hurim(筵會 fest, gemeinsames Mahl)

華夷譯語 : hurim(會 zusammenkommen)

오르도스 : xorim (banquet, festin, repas d'apparat, noce)

칼묵 방언 : xurim(versammlung, das sich sammeln)

(2) 고적

이 '고적'은 제주도(1995)를 비롯하여 현평효(1962)·박용후(1988)에 “일가에 장사가 난 때에 친척끼리 만들어 가는 부조떡”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몽골 문어 'kesig'(보시하는 물건·은혜)에서 온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 첫째 의미가 아주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둘째는 어휘론적 기준에서 볼 때 차용 관계를 떠나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五體清文鑑』에 'kesek'(肉塊, 飯肉類)이 나타난다.

語中에서 s>c의 변화는 매의 종류인 '꺾진'이 몽골어 'kögsin'의 차용 관계에서 이미 밝혀진 바 있다(李基文, 1900 : 128). 『元朝秘史』 등의 어휘가 참고 된다.

몽골 문어 : kesig(grace, favor, blessing; good luck or good fortune; turn)

제주어와 중세 몽골어의 비교 연구

元朝秘史 : kesek(分子 stück, anteil)

華夷譯語 : kesek(塊 stück)

西部蒙古語 : kesek(kycok)

오르도스 : Gėšik(part qui revient à quelqu'un, portion; partie de la viande de sacrifice et des autres mets offerts qui est distribuée)

칼묵 방언 kesəg(stück, teil des ganzen; einige stücke, mehrere)

(3) 구덕

이 어휘는 제주도(1995)와 玄平孝(1962)에는 “조금 큰 바구니”로, 石宙明(1947)과 朴用厚(1988)에는 중앙어 ‘바구니’에 해당하는 어휘로 풀이하고 있다. 석주명은 細密한 것은 ‘곤대구덕’이라는 설명을 달고 있다. 나아가 “구덕을 漢字로 九德器라고 쓴 이도 있지만 분명히 그 음에 맞추어 만든 한자어다. 그러나 그 뜻으로나 그 음으로나 잘된 한자어다”(1947 : 143)라 하여 한자어로 보고 있다.

‘바구니’의 뜻으로 쓰이는 ‘구덕’은 몽골어 ‘quduγ’에서 차용된 개연성이 크다.

東部中世蒙古語를 반영한 『至元譯語』에서는 ‘goduqa’가 ‘衣服門’의 ‘습鉢’에 대한 중세 몽골어로 표기되어 있다. 한편 ‘器物門’에서는 ‘항아리’의 뜻을 지닌 ‘瓮’의 대응 중세 몽골어로 ‘goduqa’가 등장하기도 하는데, 이 두 가지 의미를 지닌 동일 어형인 ‘goduqa’가 몽골어 차용 관계를 밝히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러나 『오르도스사전』의 ‘xuduk’, 몽골 문어로 ‘quduq’이 나타나지만 다같이 ‘우물’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

몽골 문어 : qudduγ=quduγ(well)

元朝秘史 : huduḥ⁵⁾

東部蒙古語 : goduqa(écuelle d'un bonze mendiant) /quduqa(pot, poterie, cruche)

오르도스 : xuDuk(puits creusé pour en tirer de l'eau)

5) 여기 제시한 어형은 이 부분의 落張으로 훼손되어서 『至元譯語』의 내용에 따른 것이다.

(4) 도곰

말 잔등과 안장 사이에 얹어 말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까는 물건 곧 '뽕치'를 말한다. 제주도(1995)와 玄平孝(1962)에는 중앙어 '뽕치'로 설명하고 있으며, 石宙明(1947)에서는 '도곰'이 표제어로 올라 있고 '언치 뽕언치 반언치 뽕치'를 언급하고 있다. 이 어휘는 몽골어와 관련이 있는 어휘 항목에도 들어있다. 한편 朴用厚(1988)에는 '도곰=도곰착'이라 하여 '길마 밑에 놓는 것'이라 풀이하고 있다.

또 제주어에 '도곰 수건'과 '안장 도곰'이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도곰 수건'이란 "해녀가 바다에 들 때 입는, 陰部를 가리는 옷"을 말하고, '안장 도곰'은 "안장을 씌울 때 말등이 상하지 않게 등을 덮어주는 물건"으로 설명하여 '도곰'과 같은 의미로 설명되어 있다(『제주어사전』).

『蒙語類解』에 “馬韁 ㄸ래 ○ 토흙”(鞍轡)이 보인다. 이 '토흙'이 바로 '도곰'이다. 몽골어 'тохом'은 동사 어간 'тох-'(기다란 물건을 걸치다)에 명사화 접미사 {-m}(동작의 가능성이나 행위의 과정을 나타냄)이 연결되어 형성된 어휘다. 예를 들면 зүсэх(얇게 베어내다) → зүсэм(조각), наадах(놀다) → наадам(경기)와 같다. 『五體清文鑑』에는 'toxom'(韁, 武功部 鞍轡類)이 나타난다. 'ㅎ > ㄱ'으로의 변화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몽골 문어 : toqu-(to put on over; to reinforce something by putting something over; to put one thing over another)

元朝秘史 : toḥu'ulḥu(韁 satteln)

華夷譯語 : toḥu-(韁 satteln)

東部蒙古語 : tuqom(housse, caparaçon)

오르도스 : Doḥom(chabraque sur laquelle repose la selle et qui étaant traversée par les sangles se place sur le des de l'animal et est enlevée en même temps que la selle)

칼묵 방언 : toḥ°m(schweisspolster)

(5) 두사리

제주도(1995)와 玄平孝(1962)에는 '머슴애'·'머슴살이하는 아이', 石宙明

(1947)에서는 “=더살이=장남살이”라 하고는 중앙어 ‘머슴살이’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朴用厚(1988)에서는 “=더사리”라 하고 중앙어 ‘머슴, 장남’이라 풀이하고 있다. 다같이 주인을 도와주는 ‘머슴’이라는 기본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본 결과다.

이 ‘드사리’라는 제주어는 몽골 문어 ‘tusala-’(돕다)에서 왔을 개연성이 짙다. 語幹 자체가 명사로 쓰였는가 하는 점이 문제로 남는다.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몽골 문어에서 인칭대명사 1·2·3인칭(단수)이 각각 {bi·či·i}로, 모음 {-i}로 끝나고 있다는 점이다. 『元朝秘史』의 어형을 비롯하여 다음에 제시된 어휘들도 참고가 될 것이다.

몽골 문어 : tusala-(to help, aid, assist)

元朝秘史 : tusa-(濟 beistand, hilfe)

오르도스 : duṣla-(être vis à vis de)

칼묵 방언 : tuṣlʰto(helfer, titel des vorstehers der jamuns, jamunspräsident)

(6) 복닥

제주어에서 ‘복닥’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기존 자료집의 설명을 보기로 하자.

제주도(1995) : 물건에 씌워진 겹질.

현평효(1962) : 물건에 씌워진 겹질.

석주명(1947) : =체. 겹질.

박용후(1988) : ①=체. 겹질. ②몸에 씌워진 것.

이 설명들을 한데 어우르면 ‘복닥’이란 어휘는 첫째는 겹질의 뜻으로, 둘째는 뚜껑이라는 의미와 함께 ‘모자’라는 뜻으로도 쓰임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 발화에서도 “모자 벗어” 대신에 “안의서랑(안에서랑) 복닥 벗주기”라 실현되기도 한다.

『訓蒙字會』(中, 11)에 “幘 복도 복 俗呼幘頭”와 “弁 복도 변”이 나오는데, 이 ‘복도’는 시대가 내려오면서는 ‘복두·幘頭⁶⁾’로 등장하기도 한다. ‘ㄱ>ㅌ’의

변화가 이루어진 셈이다.

劉昌惇(1974)과 南廣祐(1997)에는 표제어로 '복닥이'가 올라있는데, 각각 '모자'·'빙거지'라는 설명을 달고 있기도 하다(고시조에 등장하는 "붉은 복닥이 쓴 놈 간다"를 그 예문으로 들고 있다).

『몽골 외래어사전』(1997: 40)에는 터키어에서 온 외래어로 설명하고 있다. 곧 터키어로 'boqta'이며, '황제의 모자'(хаан титэм), '귀부인의 머리 장식'(хатны толгойн өмсгөл)을 뜻한다. 몽골 문어로는 'boɣtu'라는 것이다. 몽골 문어에는 ①요골(撓骨), ②결혼에 즈음하여 여자가 쓰는 모자를 뜻한다. '요골'은 해부학적 입장에서 볼 때, 위 '머리' 부분과 아래 '경상돌기'가 가운데 보다는 좁다. 곧 위 아래가 넓고 가운데가 잘록한데, 이 모양이 바로 여자들이 쓰는 모자와 같다. 이른바 '적용이 옹김'에 의하여 동음이의어가 생겨난 것이다. 이 모자를 현대 몽골어에서는 'богтог'(boɣtoɣ)라 하기도 하고(이 어휘도 'богт'와 마찬가지로 터키어에서 왔다), 'богтог малгай'(boɣtoɣ malayai)라고도 한다. 여기서 우리는 몽골 문어 'boɣtu'에서 제주어 '복닥이' 차용되었다고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 東部中世蒙古語를 반영한 『至元譯語』의 의복문(衣服門) '腰線'을 'boqtoq'라 하는 데서 그 개연성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語末 子音이 /q(ɣ)/로 끝나고 있음에서 더욱 그렇다. 나아가 현대 몽골어 'богтог r'[bogtoɣ]와 상관성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몽골 문어 : boɣtu(cap worn by married women)

東部蒙古語 : boqtoq(腰線 coiffure des femmes mariées)

(7) 수록

玄平孝(1962)나 제주도(1995)에는 표제어로 '수룩-짓다'와 '수룩-춌다'가 보인다. 각각 "뽕 따위가 서로 벗을 거느려 떼를 이루다"와 "뽕 따위가 서로 벗을 거느리다"라 설명하고 있다. 朴用厚(1988)에서는 '수룩'을 ①아이를

6) 『17세기 국어사전』(1995: 1314~15)에는 '僕頭'와 '幪頭' 두 어휘가 다 표제어로 올라있으나, 후자인 '幪頭'가 옳다. '僕頭'가 수록된 것은 잘못된 어형이 쓰인 예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복두'의 의미는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紅牌를 받을 때 쓰는 관"을 말한다. 『漢清文鑑』에도 한자어 '幪頭'가 보인다.

배기 위하여 부처님께 기도 드리는 것, ②떼·무리로 설명하고 있다.

『蒙語類解』에 “群 무리 ○ 수룩”(下 43, 雜語)이 보인다. 이 ‘무리’를 뜻하는 어휘 ‘수룩’이 바로 몽골 문어 ‘suruγ’(무리·집합)에서 온 어휘다. 『元朝秘史』·『華夷譯語』나 西部中世蒙古語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몽골 문어 : suruγ(=suraγ)(news, rumor, information)

元朝秘史 : suruk(羣 herde)

華夷譯語 : süruk(羣 haufe, herde)

西部蒙古語 : süruk hekilekči serke

(8) 술

이 어휘는 朴用厚(1988)에 올라 있다. 중앙어 ‘줄’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 어휘는 단독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대개는 ‘떡통술·먹술·오징어술·갈치술·케기술·연술’처럼 복합어로 자주 사용된다.

『蒙語類解』에 “鞞皮 걸피 ○ 오롱출 술”(보편26. 鞍轡補)이란 구절이 보인다. 여기서 문제는 ‘술’인데, 이 어휘가 바로 몽골 문어 ‘sur’(끈)에 해당한다.⁷⁾ 또 ‘새끼줄’의 뜻을 지닌 ‘oyusur’에서 ‘sur’이 보이기도 한다(『오르도스사전』에는 ‘ösor’이다).

현대 국어에서 “띠나 끈 따위의 끝에 달린 여러 가닥의 실”을 말하는 ‘술’과의 관계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우선은 의미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드러난다. 곧 제주어의 ‘술’은 길이가 길고 현대 국어의 ‘술’은 짧다는 점이다. 『同文類解』의 “總子 수울 ○ 수버허 ○ 又화두”(服飾, 상 57)나 『譯語類解』의 “總子 ○ 수울”(服飾補, 28)에서 ‘수울’이 나타나고 있어 ‘수울>술’의 어형 변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몽골 문어 : sur(leather strap, leather band, archer’s target)

東部蒙古語 : sur(courroie)

오르도스 : sur(courroie, lanière)

7) 중앙어 ‘줄’에 해당하는 어휘로, ‘ㅅ>ㅈ’의 변화를 알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망설여지는 부분이다. 나아가 ‘실(絲)’과의 관계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칼목 방언 : sur(riemen, von riemen gemacht)

(9) 우룩 (맞추다)

이 '우룩'이란 어휘는 단독으로 쓰이는 않고 항상 '맞추다'와 연결되어 '우룩 맞추다'로 쓰인다. 石宙明(1947)이나 朴用厚(1988)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玄平孝(1962)와 제주도(1995)에는 “날짐승 자웅(雌雄)이 서로 소리 질러 부르고 웅하고 하다”라 설명을 달고 있다. 나아가 이 어휘는 “몰래 약속하거나 무슨 일을 계획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蒙語類解』에는 “親 아버지 ○ 우룩”(上8. 人倫)을 비롯하여, “異姓親 --거리 ○ 부루지거 우룩”(상9. 人倫), “雙親 -- ○ 터긋 우룩”(4. 人倫補) · “養親 --ㅎ다 ○ 우룩 터지거귀”(12. 人事補) · “榮親 --ㅎ다 ○ 우룩 계구루귀”(12. 人事補) · “悅親 --ㅎ다 ○ 우룩 바얏하귀”(12. 人事補) 등이 있어서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어휘가 바로 몽골 문어 'uruy'(친척, 인척)(현대 몽골어에서는 '태아'·'陽物'의 뜻이 있음)에서 차용되었다. 『오르도스사전』에 등장하는 'ürga'를 비롯한 예시된 어휘를 참고할 만하다. 『華夷譯語』의 '親眷'에 대한 몽골어로 'urisadun'이 등장하는데, 이때의 'uri'가 이 '우룩'이라는 말과 관계가 있는 듯하다.

몽골 문어 : uruy(relatives by marriage ; fetus)

元朝秘史 : uruh(親 erschrecken, scheuen)

오르도스 : ürga(perche à noeud coulant prendre les chevaux)

칼목 방언 : ur^uG, ur^oG(die verwanten)

(10) 주레

제주도(1995)를 비롯하여 玄平孝(1962)에서는 “피리. 취주용 약기의 한 가지”라 설명이 되어 있다. 달리 '주네'라고도 한다. 한편 石宙明(1947)에는 '주레'를 남부어(南部語)라고 하고 중앙어 '초김'이라 풀이하고 있다. 물론 북부어(北部語)로는 '쟁이'라는 설명을 첨가하고 있다('쟁이'는 '벨기'를 말한다).

이 어휘는 몽골 문어 'čugur'(피리)의 차용어로 보인다. 몽골 문어로 'čogu

r·čugur' 두 어형이 있는데 첫 음절의 모음이 /u/가 /ɿ/로 변화되어서 시기적으로 볼 때 후자의 어휘가 차용된 듯하다. 어종의 /g/는 약화되어 탈락하는 것으로 보면 좋을 것이다.

알타이어에 'čoqur'이나 'čor'과 칼카 방언에 'coor·cuur'(espèce de flûte)이 있음도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몽골 문어 : cuɣur(a kind of reed pipe)

東部蒙古語 : Jaqur(笛兒 flûte)

오르도스 : tš'or(instrument de musique dans lequel soufflent les Darkhat à Edjin Khorō)

: tš'ürga(chalumeau des artisans qui travaillent l'argent)

(11) 허벅

이 어휘는 “모양이 둥글며 배가 볼록하고 위 아가리는 아주 좁은, 물을 길어 나르는 동이”라는 뜻을 지닌다. 이는 몽골 문어 'qobuɣa'에서 차용된 어휘다. 마지막 음절에 /ɣ/이 유지됨에 눈 여겨들 일이다. 다만 지칭하는 대상에 조금 차이가 드러난다. 우물물을 퍼 올려 다른 용기에 붓는 곧 '두레박'의 기능이 있다.⁸⁾

『五體清文鑑』에는 'qobogo'(柳罐, 器皿部 器皿類)가 나타난다.

몽골 문어 : qobuɣa(well bucket; trough; ditch, gutter)

오르도스 : xowō(auge pour abreuver le bétail)

(12) 호랑 (가지)

이 어휘는 어느 자료집에도 나오지 않는다. '처마'를 의미하지만 집 울타리와 이웃하고 있는 처마를 말한다. 처마와 울타리 간격이 좁아 비좁은 통로로 이용되는 곳이기도 하다. 옛 초가집 구조로 볼 때 보통 장독대는 안채 뒷편에 있으니 된장이나 간장을 뜨러 갈 때는 부엌문을 통과하여 남의 집과 경계

8) 만일 물을 운반하는 도구라고 한다면 'qabɣa'(bak, pouch, purse)라는 용기가 있다. 목동들이 들판에 나갈 때 편하게 끈이 달려 있기도 하다.

가 되는 울타리 사이를 지나야만 된다. 그 통로가 바로 ‘호랑 가지’라 말한다. 곧 “비 맞지 말았 이 호랑 가지 안터레 들어사라”의 ‘호랑 가지’의 ‘호랑’이다. 중앙어 ‘複道’에 해당한다.

이 ‘호랑’은 몽골어 ‘qorɣu’(그릇·용기)의 차용어일 가능성이 짙다. 이 ‘호랑 가지’란 단어를 가지고 몽골 국립대 T. Shagdarsürüᅇᅇ 교수⁹⁾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 단어를 듣고 얼른 들어준 예문이 “Би модон дор борооноос хорго дов(나는 나무 아래로 들어가 비를 피했다)”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어휘는 ‘xorɣud-’(qorgud- 마음이 끌려가다. 도망쳐 들어가다)라는 동사다. 이때 ‘qorgud-’는 ‘qorɣu’에 동사화 접미사 {-d(-дох)}(도구나 장소로의 이동을 나타냄)가 연결되어 형성된 어휘다. 예를 들면 ‘zilɣ-a’(고삐) → ‘zilɣda-’(운전하다), ‘suɣu’(겨드랑이) → ‘suɣuda-’(끼다)와 같다. 이렇게 본다면 『元朝秘史』의 ‘horɣa(n)’형이 이 방언에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할하 방언 사전(1988 : 199)』에는 ‘qorɣu’의 방언형으로 ‘qorog · qorgan’이 보이는데, 우리의 관심은 ‘qorgan’에 있다. /r/과 /a/ 사이에 있는 /g/는 아주 약한 [ɣ]로, 이 [ɣ]이 탈락하고 나면(qoran) 결국 지금 우리가 쓰는 ‘호랑 가지’의 ‘호랑’이 된다.

그 의미는 『오르도스사전』의 “양과 염소를 가뒀는 울타리나 울안의 땅”이란 설명을 눈 여겨 볼만하다. 『五體清文鑑』에 ‘qorɣu’(豎欄, 器皿部 器皿類)가 나타난다.

몽골 문어 : qorɣu(cabinet, cupboard; cage; shelter, refuge, cover)

元朝秘史 : horɣa(n)(寨子 verha, palisaden)

오르도스 : xorɣo(enclos en...où, la nuit, on enferme les moutons et les chèvres pendant l’hiver)

칼묵 방언 : xorɣɔ(schutz, schirm, schanze)

9) 이 삭달슈렝 교수는 제주도에 2회 다녀간 바 있는데, 필자가 몽골에 체류하는 동안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다. 특히 제주어와 중세 몽골어에 대한 의견 교환은 이 논문을 쓰는데 많은 참고가 되었다. 좋지 않은 복사 시설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고 귀중한 자료들을 복사하게 허락해준 것 또한 잊지 못할 일이라 여기 밝히어 그 고마움에 감사하려 한다.

이상 우리는 濟州語 가운데 12개 어휘가 몽골어 차용임을 확인하였다. 이들 대부분의 어휘들은 玄平孝(1962)의 자료집에는 제주에서만 사용되는 독특한 어형을 표시하는 *표(그의 자료집 '略號'에는 "標準語가 없거나 또는 標準語를 記入하여 넣지 못하는 말. 方言을 表示"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가 붙어 있는 제주어 어휘도 6개나 된다. 곧 '고적·구덕·복닥·수룩·우룩·허벅' 등이 그것들이다.

'복닥'인 경우는 터키어에서 몽골어로, 다시 제주어로 넘어온 차용어임을 알 수 있었다.

'술'은 길이 가 긴 것을 말하는 것으로 현대국어의 '술:'과는 약간의 뜻에 차이를 보이고 있고, '우룩'은 그 의미가 '친척'에서 현대 몽골어에서 쓰이는 의미와 흡사하다는 점이 발견되기도 한다.

'허벅'인 경우는 현대 몽골어에서는 말음 /ㄱ/이 탈락하여 쓰이는 반면, 제주어에서는 몽골 문어 어형이 쓰이고 있다는 점도 눈에 드러나는 특징이다.

李基文(1964)에서 밝힌 음운 대응도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참 고 문 헌

- 『同文類解』(亞細亞文化社, 1986)
- 『譯語類解』(亞細亞文化社, 1974)
- 『龍飛御天歌』(亞細亞文化社, 1973)
- 『芝峰類說』(울유문화사, 1994)
- 『訓蒙字會』(단국대학교 부설 동양학연구소, 1971)
- 『五體清文鑑』(故宮博物院 藏, 民族出版社, 1957, 北京)
- 姜榮峯(1996): 『제주도와 몽골』, 『한몽골 교류 천년』, 한몽골교류협회.
- 高昌錫(1995): 『耽羅國史料集』, 신아문화사
- 金泰能(1982): 『제주도사논고』, 새기문화사.
- 南廣祐(1997): 『教學 古語辭典』, 교학사.
- 朴用厚(1960·1988): 『濟州島方言研究』, 동원사.
- 石宙明(1947): 『濟州島方言集』, 서울신문사 출판부.
- 石宙明(1976): 『濟州島隨筆』, 寶晉齋.

- 劉昌惇(1974) : 『李朝語辭典』, 연세대학교출판부.
- 李能和(1909) : 『國文研究』(李基文의 『開化期の 國文研究』에 수록).
- 周時經(1909) : 『國文研究』(李基文의 『開化期の 國文研究』에 수록).
- 李基文(1991) : 『國語語彙史研究』, 동아출판사.
- 李基文(1998) : 『국어학의 경계를 넘어』, 『새국어생활』8-2·여름, 국립국어연구원.
- 제주방언연구회(1995) : 『濟州語辭典』, 제주도.
- 崔南善(1949·1974) : 『朝鮮常識問答』(삼성문화문고·16), 東明社.
- 玄平孝(1962·1995) : 『濟州島方言研究-資料篇』, 정연사.
- 홍윤표 외(1995) : 『17세기 국어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小倉進平(1934) : 『朝鮮語に於ける外來語』(중), 『小倉進平博士著作集』(4, 京都大學國文學會)에 재수록.
- 白鳥庫吉(1929) : 『高麗史に見えたる蒙古語の解釋』, 『東洋學報』18-2.
- Clauson, G.(1972) : *An Etymological Dictionary of Pre-Thirteenth Century Turkish*, Oxford.
- Haenisch, E(1939) : *Wörterbuch zu Manghol un niuca tobca'an*, Geheime Geschichte der Mongolen, Leipzig.
- Kara, G(1990) : Un Vocabulaire Sino-Mongol Des YUAN Le TCHE-YUAN YI-YU, *Acta Orientalia Academiae Scientiarum Hung. Tomus XLIV*(3). Académiai Kiadó, Budapest.
- Lessing, F.D(1960) : *Mongolian-English Dictionary*, Berkeley.
- Lewicki, M(1949~50) : La langue mongole des transcriptions Chinoise du XIV^e siècle, *Le Houa-yi yi-yu de 1389*, Warclaw.
- Mostaert, A(1941~1944) : *Dictionnaire ordos*, Peking.
- Poppe, N(1938) : *Mongol'skij Slovar' Mukaddimat al-Adab*, Moskva.
- Ramstedt, G.J(1935) : *Kalmückisches Wörterbuch*, Helsinki.
- Сүхбаатар, О(1997) : *Монгол Хэлний Харь Үгийн Толь*, Улаанбаатар.